

리버풀 비엔날레 한국작가들 `두각`



기사입력 2010-09-20 18:19



국가전시관 `아시아 미디어아트` 주도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비틀스'의 리버풀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예술 축제인 리버풀 비엔날레에서 한국이 주축이 된 `아시아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리버풀 비엔날레의 국가전시관인 시티 스테이츠에 20명의 아시아 작가들이 `미디어 랜드스케이프, 존 이스트(Media Landscape, Zone East)'라는 주제로 작품을 내놓았다.

서울, 상하이, 도쿄, 홍콩, 타이페이, 인도네시아 등 신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도시 속의 작품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동양적인 문화기반을 갖고 있는 작가들이 지역 특성 뿐아니라 빠르게 변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아우르고 있다

작가들은 회화 이후 디지털 혁명의 예술적 개입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현대 예술과 과학 기술이 결합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진화를 예견해 전통 깊은 유럽의 작가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하는 오경민은 지난 18일 열린 개막식에서 리버풀 관객들과 호흡하는 퍼포먼스를 카메라에 담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다.

브레멘과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천경우는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로 이동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설치영상작가 구정아, 퍼즐에서 영감을 얻은 박준범, 독일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민 등 다양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은 가상 현실의 개념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현대미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큐레이터 김승민 씨는 20일 "한국의 작가들이 동적인 미디어 아트를 통해 현대 미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보적인 리버풀 비엔날레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정보통신(IT) 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 한국문화원(원장 원용기)과 대안공간 루프(대표 서진석)가 기획한 이 전시회는 18일 개막돼 11월28일까지 열리며, 문화원에서도 10월 27일부터 11월20일까지 별도의 미디어아트 전시회가 개최된다.

ofcourse@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기사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4666141>
